
2 0 2 5 학 년 도

6월 모의평가 산문문학 해설지

이대봉전 / 아버지의 땅

인물의 내면세계에 대한 공감



피렘의
국어공작소

생각의 전개 <고전소설 클리셰>

2025.06 [18~21] 고전소설 '이대봉전' ☆☆☆☆

<보기> 확인

20번 문제의 <보기>는 딱히 지문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네요. 제문(제사 지낼 때 쓰는 글), 표문(임금에게 올리는 글) 등과 같은 다양한 글이 활용될 것이라는 미시적인 내용밖에 없습니다. 21번 문제의 <보기>를 먼저 읽어보도록 합시다.

<보 기>

「이대봉전」에서 주인공은 공적 가치와 사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공적 가치는 국가 차원의 사건에 참여하는 당위로 제시되고, 사적 목표는 가문의 일원으로서 그 사건 해결에 가담하는 동력이 된다. 현실계나 비현실계의 존재들 또한 주인공의 이러한 문제 해결 과정에 조력한다. 공적 활약을 통해 공적 가치의 권위를 인정하는 이면에 사적 목표의 추구를 배치하는 이러한 구도는 영웅소설이 지향하는 '충'이라는 이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사적 목표의 추구를 정당화한다.

이 지문의 주인공은 '공적 가치'와 '사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합니다. 나아가 현실계나 비현실계의 존재들의 주인공의 문제 해결 과정에 조력한다고 해요. 이들은 모두 고전소설의 전형적인 클리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를 바탕으로 지문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지문 독해

장 소제가 남복을 벗고 담장 소복으로 여복을 개착하고 금로에 향을 사르며 지랑의 영위 먼저 차린 후 제문을 읽으니, 그 글에 하였으며,

어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는 최근 고전소설의 경향이기도 한데, 모든 어휘를 알 수 없으니 최대한 맥락과 전형적인 고전소설의 줄거리 등을 통해 그 뜻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 번 읽어봅시다.

'장 소제'가 남복을 벗고 여복을 '개착'(옷을 갈아입음)했다고 합니다. '개착'이라는 단어를 몰라도, 남장을 했던 여성 인물 '장 소제'가 다시 여자 옷으로 갈아입었다는 상황을 그릴 수 있겠죠? 여성 인물이 남장하는 것은 고전소설에 지겹도록 많이 나오는 상황이니까요. 아무튼, 금로에 향을 사르며 '시랑'의 영위를 먼저 차린 후 제문을 읽었다고 합니다. 금로(금으로 만든, 향을 피우는 그릇), 영위(죽은 사람을 기리는 위패)와 같은 단어를 모른다고 해도, '제문'을 보고서 제사를 지내는 상황임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문'이라는 단어는 2014학년도 9월 모의 평가 A형에도 출제되었던 단어이면서, '제'사를 위한 '문'장이라는 식으로 그 의미를 충분히 추론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 이걸 못했다면, 남장을 벗은 '장 소제'가 어떤 글을 읽고 있다는 상황 정도만 체크한 채로 계속 읽어보도록 합시다.

'유세차 기축 삼월 정묘 삭 십오 일에 기주 장 한림의 딸 애황은 감히 이부 시랑 이 공 영위 앞에 아뢰나이다. 오호 애재라!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수록 천천히 읽어야 합니다. '장 소제'는 자신을 기주 '장 한림'의 딸 '애황'으로 소개합니다. 이제부터 '장 소제'의 이름이

'장애황'이라는 것을 잊지 않은 채로 읽을 수 있어야 해요. 아무튼 '장 소제'는 '이부 시랑 이 공' 영위 앞에 아뢴다고 하고 있습니다. '영위'라는 단어가 반복되었고, 앞에서도 '시랑의 영위'라고 표현했으니 '시랑=이부 시랑 이 공'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앞서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여기서 최소한 '시랑'이 높은 사람임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소첩의 부친이 대인과 사귀어 깊사옵더니, 그 후에 대인은 귀자를 두시고 부친은 소첩을 얻으시니 피차에 동년 동일생이라. 부친이 신기한 꿈을 꾸고는 대인과 진진지연*을 깊이 맺었더니, 슬프다, 양가 시운이 불리하여 대인은 간신의 모해를 입어 외딴섬에 유배 가시고, 부친은 대인의 억울함과 소첩의 앞길이 그릇됨을 원통히 여겨 걱정과 분노가 병이 되어 중도에 세상을 버리시니, 모친 또한 부친의 뒤를 따라 별세하시니, 외롭고 연약한 소첩은 의지할 곳이 없더라.

* 진진지연(秦晉之緣): 혼인의 인연.

소첩(장애황)의 부친, 즉 '장 한림'은 대인, 즉 '시랑'과 친구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랑'은 '귀자'라는 아들(子)을 두었고, '장 한림'은 '장애황'을 낳은 것이죠. '장 한림'은 신기한 꿈을 꾸고서 '시랑'과 혼인의 인연을 맺었다고 합니다. '장애황'과 '시랑'의 아들이 혼인을 약속한 사이였던 것이죠. 하지만 슬프게도 시운이 불리하여 '시랑'은 간신의 모해로 유배를 갔고, '장 한림'은 '시랑'의 억울함과 '장애황'의 앞길이 그릇됨을 원통히 여겨 중도에 죽어 버린 상황입니다. '장애황'의 '모친' 역시 죽은 상황이구요. 예비 시아버지와 부모님 모두 유배가거나 죽은 '장애황'은 엄청 외로웠겠어요.

이렇게 어려운 어휘가 쏟아지는 고전소설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인물관계가 잡히게끔 하셔야 합니다. 복잡한 인물관계를 체크해야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읽으면 훨씬 어려워요. '장애황'이라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벌어진 상황을 이해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물관계가 잡힐 것입니다.

간적 왕희가 첩의 고독함을 업신여겨 혼인을 강제하옵기로 번복 도주하였다가, 남자로 행세하여 용문에 올라 남적을 멸하고 대공을 이룩은, 적자 왕희를 없이하여 원통함을 풀고 대인과 공자를 찾아 혼약을 이루기 위함이었는데, 사신의 말을 들으니 대인 부자가 형적이 없다 하니, 반드시 수중고혼이 되신지라. 어찌 참통치 않으리잇고, 이에 한 잔 술을 바치옵나니 삼가 바라전대 존령은 흠향하옵소서.' 하였더라.

그 와중에 간적(간악한 도적) '왕희'는 '장애황'에게 혼인을 강제합니다. 일반적으로 절대적인 악인 한 명이 등장하는 고전소설의 클리셰를 생각하면, '왕희'가 '시랑'을 유배 보낸 간신임을 생각할 수 있겠죠? '장애황'의 입장에서는 집안의 원수와 혼인하는 것은 죽어도 싫을 것이기에 남장을 하여 '번복 도주'한 것이네요. 이런 감정과 행동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보기>에서 말한 것처럼, 남장을 한 '장애황'은 '남적'을 멸하고 대공을 이루며 공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하지만 이는 원수같은 '왕희'를 없애 원통함을 풀고 '시랑'과 그의 아들인 '공자'를 찾아 혼약을 이루기 위함이었다고 해요. 즉, 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적 가치를 실현

하려고 한 것이었죠. 공을 세워서 힘이 생기면 '시랑'과 '공자'를 찾는 것이 쉬워질 테니까요.

하지만 '사신'에게서 '시랑' 부자가 형적(남은 흔적)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들이 수중고혼(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외로운 넋)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 '장애황'은 슬퍼하며 '시랑'에게 '제문'을 올리고 있었던 것이었네요. '형적', '수중고혼'과 같은 단어를 모르더라도, '제문'을 올리는 상황 및 맥락을 고려해 '시랑' 부자가 죽었으리라 생각하는 '장애황'을 모습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수능 소설에서 근본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줄거리 파악이 아닙니다. 중심인물의 내면세계에 '공감'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줄거리를 이해하며 읽을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줄거리를 파악해야겠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읽기보다는, '장애황'의 내면세계 중심으로 읽고 공감했더니 자연스럽게 줄거리가 파악되었다는 느낌이 드셔야 합니다.

(중략)

각설. 이 공자 대봉이 부친을 모시고 용궁을 떠나 여러 날 만에 황성에 올라와 머물 곳을 정한 후, 흥노의 머리 뺨 것을 봉하여 정쟁께 올릴새 상소를 지어 전후사연을 주달하였거늘, 이때 성상이 이 시랑 부자의 생사를 알지 못하시고 장 소저의 앞길을 애련히 여기사 마음에 잊지 못하시더니, 또 장 소저의 상표가 이르렀거늘 상이 반기사 급히 열어 보시니 왈,

한편, '이 공자 대봉'은 '부친'을 모시고 '용궁'을 떠나 '황성'에 도착한 상황입니다. '공자'라는 말을 보고서 '시랑'의 아들임을 파악할 수 있어야겠죠? 죽은 줄 알았던 '시랑' 부자는 사실 살아있던 것입니다. 그것도 흥노의 머리를 베는 공을 세우면서 말이예요. 전후사연을 적어 '성상'에게 상소를 올린 상황인데, 아직 그 상소를 받지 못한 '성상'은 '시랑' 부자의 생사를 알지 못하고 '장애황'의 앞길을 애련히 여기고 있습니다. '성상'이 직접 신경을 쓸 만큼 주인공들이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아무튼,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황'이 올린 상표가 '성상'에게 도착했습니다. 이를 반갑게 열어 보는 '성상'의 모습을 상상하고 이에 공감하면서, 그 내용을 알아보려 갑시다.

'신첩 장애황은 일장 표를 용담 하에 올리나이다. 신첩이 성상의 큰 은혜를 받자와 바닷가에서 제를 올려 고혼을 위로하오나, 이승과 저승이 판이하게 달라 영혼이 자취가 없사오니, 비록 앞에 와 흠향하온들 어찌 알 리 있사오리잇가. 아득한 경상과 슬픈 마음을 진정치 못하와 제를 지내며 통곡하옵더니, 천우신조하와 삭발 승려를 만나오니 이 곧 시랑 이익의 처 양쨌라. 비록 성혼 행례는 아니 하였사오나 어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아니리잇가. 일비일희하여 즐겁기 무궁하오나, 이는 다 성상의 넓은 덕택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나 왕희 부자는 국가를 혼란스럽게 한 간신이옵고 신첩의 원수라. 바라건대 폐하는 왕희 부자를 엄형 국문하사 국법을 밝히시고, 그 부자를 신첩에게 내어 주시면 남선우 베던 칼로 난신을 죽여 이익의 부자에게 제하여 영혼을 위로하리이다.' 하였더라.

'장애황'이 바닷가에서 제를 올리는 상황, 즉 (중략) 이전의 상황에서 보낸 상표로 보입니다. '제문'을 올린 뒤 슬퍼하고 있던 '장애황'은 천우신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조(하늘과 신이 도움)로 '시랑'의 부인인 '양 씨'를 만납니다. 비록 결혼은 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인 둘은 서로 기뻐하고, '장애황'은 이를 '성상'의 덕으로 돌리고 있어요. 이는 임금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한다는, 전형적인 고전문학의 세계관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장애황'은 이 와중에 '성상'에게 집안의 원수 '왕희' 부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공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동시에 사적 목표를 이루려고 한다는 <보기>의 내용이 잘 드러나죠?

상이 다 보신 후 정히 처결코자 하시더니, 이때 또 하나의 표문이 올라오거늘, 상이 의뢰하여 열어 보시니 그 소에 하였으되, '죄신 이대봉은 황궁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머리를 조아려 절을 올리며 한 장 표문을 황상 용담 하에 바치옵나이다. 신의 부자가 간신 왕희의 모함을 입었사오나, 폐하의 성덕을 입사와 이 한목숨에 너그러움을 베풀어 해도에 내치신 덕택으로 유배지로 가옵더니, 도중을 향하와 배를 타고 대해 중에 행하옵더니, 뜻밖에 뱃사람들이 달려들어 아비를 결박하여 물에 던지거늘, 신의 아비 죽는 양을 보고 또한 뒤를 따라 수중에 빠지오매 거의 죽게 되었삽더니, 마침 저해 용왕의 구함을 입어 살아나 서역 천축국 백운암에 가 팔 년을 의탁하였나이다.

'성상'은 이러한 '장애황'의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려 합니다. 그런데 이 때 또 하나의 표문이 올라왔어요. 이상하게 여긴 '성상'은 이를 열어보는데, 이는 '이대봉', 즉 '시랑'의 아들이 올린 것입니다. '성상' 입장에서 는 궁금해하던 이들의 사정을 다 알게 되었네요.

우리가 미리 생각한 대로, '이대봉' 부자는 '왕희'의 모함으로 유배를 떠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배를 타고 유배지로 가던 중, '뱃사람들'이 달려들어 '시랑'을 결박해 물에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이대봉' 역시 이를 따라 물에 뛰어든었는데, '서해 용왕'의 도움으로 '백운암'에서 '팔 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보기>에서 말한 것처럼 비현실적 존재의 조력이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중략) 이전에 비해서는 훨씬 이해하기가 수월합니다. 어쨌든 '장애황'의 생각과 달리, 다행히 '시랑' 부자는 살아있네요.

생각하옵건대 신의 부자가 국가의 죄인이라. 타처에 오래 있사옵니 울지 않아 세상에 나와 수중에 빠진 아비 유골이나마 찾고 고국에 있는 어미를 찾아보고자 하와 중원으로 돌아가옵다가, 농서에서 한나라 장수 이평의 영혼을 만나 갑옷과 투구를 얻고, 사평에서 오추마를 얻으며, 화용도에서 관공의 영혼을 만나 칼을 얻어, 황성으로 향코자 하옵다가, 반적 홍노가 천자의 자리를 범하여 황성을 함몰하고 어가가 금릉으로 행하셨다 함을 듣고, 분심을 이기지 못하와 전죄를 무릅쓰고 천 리를 달려와 금릉에 이르러 자칭 충의장군이라 하옵고 필마단창으로 적군을 파하고 적장 목탁갑과 동돌주를 베어 성상의 급하심을 구하옵고, 흥노가 도망하는 것을 따라 서릉도에 들어가 흥노를 베었나이다.

비록 모함에 빠진 것이기는 하지만, '이대봉'은 국가의 죄인입니다. 죄인의 몸으로 타처에 오래 있는 것이 울지 않다고 생각한(사실 임금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그럴듯한 핑계를 댄 것이겠죠?) '이대봉'은 '백운암'을 떠나 '중원'으로 돌아옵니다. 그 과정에서 '이릉'의 영혼, '관

공'의 영혼 등 비현실적 존재들의 도움을 받으며 여러 장비를 얻는 모습 이죠? 이렇게 장비를 갖춘 '이대봉'은 '황성'으로 향하려다가, '홍노'가 역모를 꾀하여 어가(임금의 수레)가 '금릉'으로 행했다는 말에 분심을 이기지 못하여 '홍노'를 비롯한 역적들을 처단했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영웅소설의 클리셰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클리셰를 활용하며 내용을 이해하고, '어가'와 같은 단어들의 뜻도 유추할 수 있어야 해요.

돌아오는 길에 해중에서 풍랑을 만나 나흘 밤낮을 정처 없이 가다가 천우신조하옵고, 성상의 하해지덕으로 무인절도에 다 다라 바람이 그치오며, 그 섬에 올라가 죽었던 아버를 만났사 오니 황명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감히 함께 와 대죄하옵나니, 신의 부자의 죄 만 번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하 오나 왕희는 국가의 난신적자요 신의 원수라. 뱃사람이 재물 없이 적소로 가는 죄수를 무단히 살해하올 일은 만무하온즉, 이는 반드시 왕희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의심할 바 없는지라 바라옵건대 성상은 엄형 국문하옵신 후 왕적을 내어 주시고 신의 죄를 다스리옵소서.'

하엿더라.

- 작자 미상, 「이대봉전」 -

그렇게 다시 '황성'으로 돌아오는 길, '이대봉'은 풍랑을 만나 나흘 밤낮을 정처 없이 가다가 '무인절도'에서 '시랑'을 만납니다. 여기서도 '성상'의 덕을 칭송하는 모습이 나타나네요. 나아가 집안의 원수인 '왕희'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까지 '장애황'과 똑같습니다. '성상'의 입장에서는 궁금해하던 이들의 소식을 모두 알게 되었고, 이들의 원수까지 정확하게 특정했으니 안도감을 느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상상하면서 읽어 주실 수 있어야 해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4%	11%	18%	60%	7%

18.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은 이대봉이 이릉의 영혼을 만나 갑옷과 칼을 얻은 공간이다.

㉡ 용궁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중원으로 가는 길에 얻은 것인데?
해설	'이대봉'은 '백운암'에서 '중원'으로 향하는 길에 '이릉'의 영혼 등 비현실적 존재들을 만나 갑옷과 칼을 얻습니다. 이곳이 '용궁'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절대 허용할 수 없겠습니다. '농서'와 같은 정확한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중원'으로 향하는 길이었다는 것 정도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해요.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 ㉡은 홍노가 침범한 곳이자 이대봉이 홍노를 처단한 공간이다.

㉢ 황성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황성은 다 끝내고 도착한 곳이잖아.
해설	'황성'은 현재 '성상'이 계신 곳으로, '홍노'가 침범한 곳은 맞습니다. 이에 어가가 '금릉'으로 도망치는 일이 있었죠. 나아가 '황성'은 '홍노'를 베는 등 공을 세운 '이대봉'이 '시랑'을 모시고 나서야 도착한 곳입니다. 즉, '황성'은 '이대봉'이 '홍노'를 처단한 다음에야 도착한 곳이기에 허용하기 어려운 선지네요. 정확하게는 '서릉도'에서 뱄 것이지만, 이를 기억하기보다는 '이대봉'의 행적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은 장 한림 부부가 간신의 모해로 유배 간 공간이다.

폐하의 성덕을 입사와 이 한복속에 너그러움을 베풀어 ㉣ 해도에 내치신 덕택으로 유배지로 가옵더니,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이 시랑 부자가 유배간 것이지.
해설	'장 한림' 부부가 아닌 '이 시랑' 부자가 유배를 간 것이죠? '장애황'의 부친인 '장 한림'은 억울하게 유배를 간 '시랑' 때문에 원통해하며 죽은 인물일 뿐입니다. 지문 내용을 이해했다면 이런 인물관계가 '자연스럽게' 잡혀 있을 것입니다.

㉣ ㉣은 이대봉이 중원으로 향하기 전에 머물던 공간이다.

㉤ 백운암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오 그렇지.
해설	'백운암'은 '서해 용왕'의 도움으로 살아난 '이대봉'이 팔 년을 의탁한 곳입니다. 이곳에 있던 '이대봉'은 국가의 죄인 신분으로 타처에 오래 머무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 '중원'으로 떠났었죠? 이런 '이대봉'의 심리에 공감했던 기억이 있다면, 이와 같은 내용이 기억날 것입니다.
	이렇게 풀어야 합니다. 공감을 통해 자연스럽게 줄거리를 파악하는 것이지, 줄거리만 파악하겠다고 덤비면 오히려 더 헷갈리기만 할 것입니다. 수능 소설에서는 공감 능력을 묻는다는 걸 잊지 마세요.

⑤ ㉠은 동돌수가 이대봉을 피해 달아난 공간이다.

㉠ 규릉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여가가 도망간 곳이지.
해설	‘금릉’은 기본적으로 여가가 도망간 곳입니다. 나아가 ‘동돌수’는 ‘금릉’에서 ‘이대봉’에게 죽임을 당한 했지만, ‘이대봉’을 피해 달아난 것은 아닙니다. 아마 ‘성상’을 잡으러 갔다가 ‘이대봉’에게 당한 것이겠죠.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6%	8%	65%	11%	10%

19. [장 소제]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이 지문의 주인공인 ‘장애황’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초반에 제시된 제문, (중략) 이후에 제시된 상표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① 부친과 이 시랑이 ‘진진지연’을 맺은 데에는 신기한 꿈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알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랬지.
해설	‘장애황’은 자신의 부친인 ‘장 한림’이 신기한 꿈을 꾸고는 ‘시랑’과 진진지연을 깊이 맺었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 그대로 근거가 되어 허용할 수 있겠죠? 결국 ‘장애황’의 내면세계에 공감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부친’, ‘대인’과 같은 표현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이해했느냐가 관건입니다.

② 이 시랑이 ‘간신의 모해’를 입은 것은 시운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랬지.
해설	‘양가 시운이 불리하여’ 대인, 즉 ‘이 시랑’이 간신의 모해를 받았다는 서술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죠? ‘대인’의 정체만 밝혔다면 당연히 허용할 수 있습니다.

③ 부친이 ‘세상을 버린 까닭은 혼약이 어그러진 것과 이 시랑의 죽음에 대한 분노 때문이라고 여겼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죽음에 대한 분노가 아닌데?

해설	‘장애황’의 부친인 ‘장 한림’은 ‘시랑’의 억울함과 ‘장애황’의 앞길이 그릇됨을 원통히 여기다가 죽었습니다. 혼약이 어그러진 것은 ‘장애황’의 앞길이 그릇됨과 억지로라도 연결할 수 있겠지만, ‘장 한림’은 ‘이 시랑’의 ‘죽음’에 대한 분노가 아닌 ‘억울한 유배’에 대한 분노 때문에 죽은 것이기에 허용할 수 없었습니다. ‘장 한림’의 원통함의 근거를 아주 디테일하게 묻고 있네요. ‘장 한림’이 왜 원통해하고 걱정과 분노가 병이 될 정도로 힘들었는지, 그 감정에 공감했다면 충분히 기억할 수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단순한 내용일치 문제로 치부하시면 안 됩니다. ‘공감’이라는 중요 포인트에 주목하세요.
----	--

④ 왕희가 ‘혼인을 강제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번복 도주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남장을 한 이유였지.
해설	집안의 원수인 ‘왕희’가 혼인을 강제하자 이에 수치심을 느끼고 남장하여 도망가는 ‘장애황’의 모습, 미리 생각하고 공감했던 내용이죠? 가볍게 허용할 수 있겠네요.

⑤ ‘성혼 행례’는 하지 않았으나, 승려가 된 양씨를 시어머니로 대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랬지.
해설	‘장애황’은 천우신조로 만난 ‘이 시랑’의 처 ‘양씨’를 시어머니로 대합니다. 비록 성혼 행례는 하지 않았지만, 약혼이 억울하게 깨진 사이이니 사실상 시어머니로 대할 수 있다는 것이 ‘장애황’의 입장이었죠. 이에 기뻐하는 ‘장애황’과 ‘양씨’의 모습에 공감했던 기억이 있으니 이를 근거로 가볍게 허용할 수 있습니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6%	11%	49%	25%	9%

20. <보기>의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③

<보 기>

선생님 : 고전 소설에서는 제문, 표문 등과 같은 다양한 글이 활용되기도 해요. 윗글의 ㉠과 ㉡에서 글을 바치는 사람과 받는 상대가 누구인지 고려하여, 글의 특징이나 기능에 대해 말해 보세요.

학 생 : _____ [A] _____

선생님 : 네, 맞아요.

장 소저가 남북을 벗고 담장 소복으로 여복을 개착하고 금로에 향을 사르며 사랑의 영위 먼저 차린 후 제문을 읽으니, ㉠그 글에 하였으며,

상이 다 보신 후 정히 치결코자 하시더니, 이때 또 하나의 표문이 올라오거늘, 상이 의괴하여 열어 보시니 ㉡그 소에 하였으며,

- <보기>의 '선생님'이 요구하는 대로 글을 바치는 사람과 받는 상대를 고려하면서 ㉠, ㉡를 정리해봅시다. ㉠는 '장애황'이 '시랑'에게 바치는 제문으로, '장애황' 부녀 및 '시랑' 부자와 관련된 여러 정보가 제시되는 글입니다. ㉡는 '이대봉'이 '성상'에게 바치는 표문으로, '이대봉'과 '시랑'이 겪었던 일들에 대해 적혀 있지?

① ㉠는 망자에게 바치는 제문이고, ㉡는 성상에게 바치는 표문이에요.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지.
해설	㉠는 '장애황'이 망자로 생각하고 있는 '시랑'에게 바치는 제문이고, ㉡는 미리 생각했듯이 '이대봉'이 '성상'에게 바치는 표문입니다.

② ㉠는 상대의 원통함을 위로하기 위하여, ㉡는 상대에게 사건 경과를 알려 특별한 조치를 요청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어요.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지.
해설	㉠는 '장애황'이 '시랑'의 원통함을 위로하기 위한 제문이고, ㉡는 '이대봉'이 '성상'에게 자신이 겪은 일들의 경과를 알려 '왕희'를 처단해달라는 특별한 조치를 요청하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③ ㉠와 달리 ㉡에는 글을 바치는 사람이 스스로를 낮추는 표현이 사용되었어요.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둘 다 낮추는 표현이 있는데?

해설	㉠에서 '장애황'은 스스로를 '소첩'(결혼한 여자가 스스로를 낮추는 표현)이라고 표현했고, ㉡에서 '이대봉'은 스스로를 '죄신'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는 모두 글을 바치는 사람이 스스로를 낮추는 표현이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애초에 글의 대상이 예비 시아버지 및 임금임을 고려하면 당연히 자신을 낮춘 표현을 사용할 것입니다.
----	--

④ ㉠에서 글을 바치는 사람이 오해했던 사건의 실상이 ㉡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사실 시랑 부자는 살아있었지.
해설	㉠에서 글을 바치는 사람인 '장애황'은 '시랑' 부자가 죽었을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서해 용왕'의 도움으로 살아있었죠? 이러한 사건의 실상이 ㉡에서 드러나고 있으니 허용할 수 있겠습니다. 지문을 읽으면서도 미리 생각한 내용이네요.

⑤ ㉠와 ㉡는 모두 글을 바치는 사람과 상대를 서두에서 밝히고 있어요.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러네.
해설	㉠는 기주 장 한림의 딸 '애황'은 감히 이부 '시랑'이 공 영위 앞에 아뢰나이다.'라며 시작했고, ㉡는 죄신 '이대봉'은 황공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머리를 조아려 절을 올리며 한 장 표문을 '황상' 용탑 하에 바치옵나이다.라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쉽게 허용할 수 있겠네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15%	12%	15%	48%	10%

2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④

① 장애황이 혼약을 이루기 위해 대공을 세웠다고 한 데에서, 혼약이 국가 차원의 사건에 참여하는 동력이 되었음을 알 수 있군.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혼약은 사적 목표니까 맞지.
해설	<보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황'은 혼약이라는 '사적 목표'를 동력으로 삼아 국가 차원의 사건에 참여합니다. 공을 세워 지위가 높아지면 '시랑' 부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니까요. 지문을 읽으면서 미리 공감했던 내용이죠?

- ② 장애황이 난신 왕희를 국법으로 다스린 후 자신에게 내어 달라고 한 데에서, 공적 권위를 존중하되 사적 목표도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을 알 수 있군.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국법을 먼저 제시했네.
해설	‘장애황’은 ‘성상’에게 ‘왕희’를 국법으로 다스린 후 자신에게 내어 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국법을 사용한다는 ‘공적 권위’를 존중하되, <보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원수를 갚겠다는 ‘사적 목표’도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FAQ

Q : <보기>에서 공적 가치의 권위는 ‘공적 활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왕희’를 국법으로 다스려 달라는 것은 ‘장애황’ 자신의 ‘공적 활약’과는 무관하지 않나요? 아직 ‘장애황’은 ‘왕희’를 잡지 못했으니까요. 그럼 <보기>를 참고한 감상이 아닌 것 아닐까요?

A : 말씀하신 <보기>의 내용은 ‘공적 가치의 권위’에 대한 것입니다. 즉, ‘공적 활약을 펼침으로써 ‘공적 가치’인 ‘성상의 보호’에 대한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선지에서 묻는 것은 ‘공적 권위’입니다.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이는 ‘공적 가치의 권위’와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각각 ‘공적으로 떨치는 권위’와 ‘가치에 대한 권위’라는 의미니까요. 따라서 이 선지는 그저 ‘공적 권위’를 존중한다는 <보기> 외부의 정보와 ‘사적 목표’를 추구한다는 <보기> 내부의 정보를 섞어 물어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장애황’이라는 주인공이 ‘사적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는 감상을 한 것이죠.

- ③ 흉노의 침입으로 성상이 피신했다는 소식에 분노하여 이대봉이 출전한 데에서, 국가 차원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군.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공적 가치가 국가 차원 문제 해결의 당위가 되지.
해설	<보기>에 따르면, ‘성상의 보호’와 같은 ‘공적 가치’는 ‘국가 차원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당위가 됩니다. 이를 참고하면, ‘흉노’의 침입으로 ‘성상’이 ‘금릉’으로 피신했다는 소식에 분노하여 출전하는 ‘이대봉’의 모습은, ‘공적 가치’라는 당위를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④ 표류하던 이대봉이 천우신조로 무인절도에서 이 시랑과 재회한 데에서, 비현실계의 존재가 이대봉의 공적 활약에 조력한 것을 확인할 수 있군.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공적 활약에 조력하다니. 그냥 아빠 만난 건데.

해설	‘이대봉’이 천우신조로 ‘무인절도’에서 아버지인 ‘시랑’과 재회한 것은 비현실계의 존재가 개입한 것이 아니라 우연한 사건입니다. ‘천우신조’는 하늘과 신이 도왔다는 의미이지만, 그만큼 우연한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표현일 뿐이에요. 나아가 ‘이대봉’이 ‘시랑’과 만난 것은 그저 가족끼리 상봉한 모습일 뿐, ‘이대봉’의 ‘공적 활약’과는 무관하죠? 이러한 내용들을 근거로 하면 가볍게 답으로 고를 수 있겠네요.
----	--

- ⑤ 이대봉이 흉노 제압을 공으로 드러낸 후 성상에게 왕희의 처벌을 요구한 데에서, 충의 이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사적 목표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인물의 의중을 확인할 수 있군.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공적 활약을 통해 공적 가치의 권위를 인정하는 이면에 사적 목표의 추구가 배치되어 있네.
해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에 적힌 <보기>의 내용이 그대로 녹아있는 선지네요. ‘이대봉’은 ‘흉노’ 제압이라는 ‘공적 활약’을 드러내며 ‘공적 가치의 권위’를 인정하는 한편, 자신의 원수인 ‘왕희’의 처벌을 요구하며 ‘사적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기>에서 말한 것처럼 영웅소설이 지향하는 ‘충’이라는 이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사적 목표’의 추구를 정당화하는 인물의 의중이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핵심 point

- ① 허용 가능성 평가 : 선지의 내용을 ‘허용’하려는 태도를 바탕으로 지문을 ‘독해’하며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허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만 허용할 수 있습니다. 주관적인 생각을 개입시키면 안 됩니다.
- ② 소설 독해 : ‘심리와 행동의 근거’를 바탕으로 인물에게 ‘공감’하며 읽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몰흐르듯 이어지면 지문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 ③ 고전소설 클리셰 : 일관된 성격을 가진 인물들이 다양한 관계를 맺지만, 악인과 선인의 구도가 두드러집니다. 나아가 악한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은 결국 보상을 얻어요. 이러한 클리셰를 알고 있다면 지문의 내용을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지문 내용 총정리

어려운 어휘가 정말 많이 사용되었고, 인물의 대사를 통해 사건의 정황을 제시하는 낯선 형태로 체감 난이도를 상당히 높인 지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장애황'과 '이대봉'이라는 주인공들의 내면세계에 공감하며 읽어 나가면 자연스럽게 인물관계와 줄거리가 잡히는, 전형적인 형태의 '소설' 지문이었어요. 줄거리를 파악하고 인물관계를 잡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닌, 그저 공감하려고 애썼더니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리는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이 본질적인 내용을 잊지 마세요!

생각의 전개 <산문문학 해결하기>

2025.06 [27~30] 현대소설 '아버지의 땅' ☆☆☆☆

<보기> 확인

— <보 기> —

부정적인 방향으로 응고된 기억을 돌이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편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심리 요법의 일환으로 적용되는 '기억 재응고화'는 마음의 상처로 남은 기억을 재구성하여 다른 의미와 가치에 대응시킴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적 기억으로 빚어진 심리적 불안정에 대응할 힘을 회복하도록 돕는 원리이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응고된 기억, 즉 일종의 트라우마를 돌이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편하는 '기억 재응고화'에 대한 <보기>입니다. 이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고 해요. 이런 <보기>가 제시되었다는 건, 이 지문의 인물이 '기억 재응고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종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을 그 인물을 만나러 가봅시다.

지문 독해

어머니의 변명은 끝끝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 못했다. 그 후로 나는 좀처럼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 않게 되었다. 뜻밖에도 아버지의 죄를 순수히 시인하는 그녀의 한마디가 내게는 그토록 엄청난 충격으로 깊이 남겨졌던 탓이리라. 바로 그 순간부터 나는 아버지의 그 죄라는 것을 내 스스로 함께 나누어 지니고 만 느낌이었고, 그 때문에 나이에 걸맞지 않게 나는 눈빛이 깊고 어두운 아이가 되어 가고 있었다.

'어머니'가 무언가 변명을 했는데, 이것이 '나'에게는 그리 도움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후로 '나'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보아, '어머니'의 변명은 '아버지'의 잘못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의 죄를 순수히 시인하는 '어머니'의 변명은 '나'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나 봐요.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보기>에서 말한 '부정적인 방향으로 응고된 기억'이 형성되는 순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생각할 수 있겠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나'는 '아버지'의 죄를 함께 나누어 지니고 만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니, '나'는 나이에 걸맞지 않게 눈빛이 깊고 어두운 아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때부터 아버지의 무서운 환영은 저주처럼 내 곁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그는 언제나 시커먼 어둠 저편에 숨어서 음산하기 그지없는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고 있었다. 그는 어디에나 숨어 있었다. 내 어릴 때 이따금 고개를 디밀어 들여다보면 마루 밑 저편 깊숙이 도사리고 있던 그 까마득한 어둠 속에도 그 어둠 속에서 술술 기어 나오던 그 녹녹하고 음습한 냄새 속에서도 내가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그 사내는 핏발 선 눈알을 번득이며 나를 쏘아보고 있는 것이었다.> 그건 어디서 묻었는지도 모르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까지 지워지지 않는 핏자국처럼 내게는 저주와 공포의 낙인으로 깊이 박혀져 있었다. 그리고 그 낙인을 가슴에 지닌 채, 나는 끝끝내 나를 휘

감고 있는 어떤 엄청난 죄악감과 불길한 예감으로부터 영영 벗어날 수가 없었다.

‘나’는 스스로 ‘아버지’의 죄를 함께 나누어 지니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아버지’의 무서운 환영이 저주처럼 따라다니는 느낌을 받는 것에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겠네요. <> 표시한 부분은 일종의 ‘skip 가능 구간’으로, 결국 ‘아버지’의 환영이 무서운 모습으로 자신을 따라다녔다는 내용의 반복이라는 생각을 하며 가볍게 넘어갈 수 있겠지요?

이런 ‘아버지’의 환영은 ‘나’에겐 ‘저주와 공포의 낙인’으로까지 표현될 만큼 트라우마였을 것입니다. ‘나’는 ‘엄청난 죄악감과 불길한 예감’으로부터 영영 벗어날 수 없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이에 억눌리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렇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응고된 기억’을 ‘재응고화’하는 모습이 나타나겠지요? 기대하면서 읽어봅시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나와 부대원들은 훈련에 대비해 참호를 파다가 발견한 유해를 인근 마을의 노인과 함께 수습하여 매장하는 일을 행한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입니다. 시간이 흘러, ‘나’가 군대에 간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나’와 부대원들은 참호를 파다가 유해를 발견하는데, 이를 인근 마을의 ‘노인’과 함께 수습하여 매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건을 통해 ‘나’의 ‘기억 재응고화’가 이루어지겠지요?

두개골과 다리뼈를 꼼꼼히 문질러 닦은 뒤, 노인은 몸통뼈에 묶인 줄을 풀어내기 시작했다. 완강하게 묶인 매듭은 마침내 노인의 손끝에서 풀리어졌다. 금방이라도 찢겨떨어져 쇠소리를 낼 듯한 철사줄은 싱싱하게 살아 있었다. 살을 녹이고 뼈까지도 녹슬게 만든 그 오랜 시간과 땅 밑의 어둠을 끝끝내 견뎌 내고 그렇듯 시퍼렇게 되살아 나오는 그것의 놀라운 끈질김과 냉혹성이 언뜻 소름끼치도록 무서움증을 느끼게 했다.

노인은 손목과 팔에 묶인 결박까지 마저 풀어낸 다음 허리를 펴고 일어서더니 줄 묶음을 들고 저만치 걸어 나갔다. 그가 허공을 향해 그것을 멀리 내던지는 순간 나는 까닭 모르게 마당가에서 하늘을 치어다보며 서 있는 어머니의 가녀린 목 줄기와 그녀가 아침마다 소반 위에 떠서 올리곤 하던 하얀 물 사발이 눈앞에 떠올랐다가 스러져 버리는 것이었다.

‘나’를 포함한 부대원들이 ‘노인’과 함께 유해를 수습하고 있습니다. 유해를 묶고 있던 철사줄은 살과 뼈가 녹을 때까지도 싱싱하게 살아 있습니다. 이런 철사줄의 ‘끈질김과 냉혹성’이 소름끼치도록 무서웠다는 ‘나’의 감정에 공감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겠지요? 전쟁의 참혹함,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는 상황이니깐요.

아무튼 ‘노인’은 그 ‘줄 묶음’을 허공을 향해 멀리 내던집니다. 그런데 이를 보면 ‘나’는 ‘어머니’의 모습과 그녀가 아침마다 소반 위에 떠서 올리곤 하던 ‘하얀 물 사발’을 떠올립니다. ‘나’에게 트라우마를 안긴 ‘어머니’가 떠올랐다는 것은, ‘노인’의 행동으로부터 ‘기억 재응고화’ 과정이 시작되었다는 의미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단순히 트라우마가 다시 떠오르는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보기>의 내용을 최대한 적용하면 이와 같이 생각할 수 있겠지요?

나는 담배를 피워 물었다. 멀리 메마른 초겨울의 야산이 험뎨는 등을 까 내놓고 죽은 듯이 얼드려 있었다. 사위는 온통 잿빛의 풍경이었다. 피잉, 현기증이 일었다.

광주리를 머리에 인 어머니가 모래밭을 걸어오고 있었다. <돌돌거리며 흐르는 물소리를 거슬러 강변 모래밭을 어머니가 혼자 저만치서 다가오고 있었다. 모래밭은 하얗게 햇살을 되받아 쏘며 은빛으로 반짝였다. 허리띠를 질끈 동인 어머니의 치맛자락이 흐느적이며 바람결에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햇살에 부신 눈을 가늘게 오므리고 줄곧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꿈속에서처럼 나는 그녀의 뒤를 바짝 따라오고 있는 한 사내의 환영을 보았다. 그건 아버지였다. 언젠가 어머니의 낡은 반닫이 깊숙한 옷가지 밑에 숨겨져 있던 액자 속에서 학생복 차림으로 서 있던 그대로 그건 영락없는 그 사내였다. 나를 어머니의 배 속에 남겨 놓은 채 어느 바람이 몹시 부는 날 밤, 산길을 타고 지리산인가 어디로 황황히 떠나가 버렸다는 사내. <창백해 보이는 뺨에 마른 몸집>의 그 사내가 어머니와 함께 걸어오고 있는 것이었다.

갑자기 ‘어머니’가 떠오른 ‘나’는 담배를 피워 뚹니다. 그런데 그 순간 현기증이 나면서 ‘메마른 초겨울의 야산’을 보고 있어요. 정말로 이런 풍경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닐 테고, 아마 과거 장면을 회상하는 것이거나 어떤 장면을 상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곳에서는 ‘어머니’가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모래밭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 부분에서 묘사된 배경 및 외양을 참고하며 이 장면을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어머니’ 뒤를, ‘한 사내의 환영’이 바짝 따라옵니다. 바로 ‘나’에게 트라우마를 안긴 ‘아버지’예요. ‘어머니’가 숨겨 놓은 액자 속 학생복 차림으로 서 있던 그대로의 모습을 한 ‘아버지’가 ‘어머니’를 바짝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생각한 것처럼, 이는 ‘노인’의 모습을 통해 연상한 ‘어머니’의 모습에서 나아가 ‘아버지’까지 떠올리며 ‘나’의 ‘기억 재응고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기>의 내용을 가져오면, 이는 ‘아버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식하는 모습이겠지요. 그저 죄인이라고만 여겼던 ‘아버지’도 사실은 ‘어머니’와 함께 하고자 했던 평범한 남자였다는 식으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백해 보이는 뺨에 마른 몸집’이라는 외양 묘사를 보면 ‘아버지’에게 연민을 느끼는 ‘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인식을 바꾸면서 ‘기억 재응고화’를 하고 있는 ‘나’의 내면세계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해요.

놀란 눈으로 풀밭에 앉아 나는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윽고 어머니의 <눈썹과 코, 입의 윤곽과 아원 목 줄기>까지 뚜렷이 드러날 만큼 가까워졌을 때 사내의 환영은 어느 틈에 사라져 버리고 없었다. 몇 번이나 눈을 비비고 보았으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얗게 반짝이는 모래밭 위로 어머니가 찍어 내는 발자국만 유령처럼 끈질기게 그녀의 발꿈치를 뒤따라오고 있을 뿐이었다.

당연히 ‘나’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풀밭에 앉아 그들을 지켜본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내면세계 깊숙이 들어가 더 자세하게 상상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아무튼 ‘어머니’의 모습을 자세히 떠올릴 수 있을 만큼 깊은 상상에 빠진 그때, ‘아버지’의 환영은 어느 틈에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아버지’가 아닌, 그저 ‘어머니’의 발자국만

‘어머니’를 뒤따라오고 있을 뿐이에요.

딱 이 정도로만 읽어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나’가 ‘아버지’에 대해 더 자세히 인식하고 싶지만 그러한 경험의 부족, ‘아버지’에 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인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더 훌륭할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아버지’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 ‘기억 재응고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면세계에 주목한다면 충분히 떠올릴 수 있는 생각일 거예요.

우리는 관 대신에 신문지로 짠 유해를 맨 처음 그 자리에 다시 묻어 주었다. 도톰하니 봉분을 만들고 뗏장까지 입혀 놓고 보니 영성한 대로 형상은 갖춘 듯싶었다. 노인은 술을 흙 위에 뿌려 주었다. 그리고 자신이 먼저 한 모금 마신 다음에 잔을 돌렸다. **오 일병**이 노파가 준 북어를 내놓았고, 덕분에 작은 술판이 벌어졌다. 음복인 셈이었다.

“엄마, 이런 느닷없는 장례식도 모두 너희 두 놈들 때문이니까, 자 한 잔씩 마셔라.”

“그래그래, 어쨌든 너희들은 좋은 일 했으니 천당 가도 되겠다.”

소대장이 병을 기울였고 다른 녀석들도 **낄낄대며** 한마디씩 보태었다.

‘나’의 성찰이 끝나고, 다시 현실입니다. ‘나’와 부대원들, 그리고 ‘노인’은 유해에 대한 일종의 제사를 치르고 작은 술판을 벌입니다. 어찌 되었던 좋은 일을 한 것이니 서로 기분 좋게 술을 마시며 마무리하자는 취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오 일병’, ‘소대장’을 비롯한 이들은 ‘낄낄대며’ 즐거워 보입니다.

하지만 ‘나’의 내면세계에 공감하며 읽고 있는 여러분들은 전혀 즐겁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아버지’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 ‘기억 재응고화’를 할 수 있는 기회예요. 마음도 싱숭생숭할 것이기 때문에, 술자리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성찰하는 ‘나’의 모습이 떠올라야 합니다. 이 모습이 떠올랐다면 지문을 정말 잘 읽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술이 가득 차오른 반합 뚜껑을 나는 두 손으로 받쳐 들었다. 저것 봐라. 낱김승도 때가 되면 돌아올 줄 아는 법이다. 어머니가 말했다. <저만치 웬 사내가 서 있었다. 가슴과 팔목에 철삿줄을 동여맨 채 사내는 이쪽을 응시하며 구부정하게 서 있었다. 캉하니 열려 있는 그 사내의 눈은 잔뜩 겁에 질려 있는 채로였다. 애앵. 총성이 울렸고 그는 허물어지듯 앞으로 고꾸라지고 있었다.> 불현듯 시야가 부엌에 흐려 왔다.

그렇게 술을 받던 ‘나’는 또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낱김승’도 때가 되면 돌아올 줄 아는 법이라고 말하면서 ‘아버지’를 기다리던 ‘어머니’의 모습을 말이에요. 그러자 또 한쪽에선 웬 사내가 보입니다. ‘나’가 수습한 유해의 모습처럼, 가슴과 팔목에 철삿줄을 동여맨 채 이쪽을 응시하며 구부정하게 서 있는 모습이에요. 잔뜩 겁에 질린 그 사내를 향해 총성이 울렸고, 허물어지듯 앞으로 고꾸라집니다. 불현듯 시야가 부엌에 흐려 옵니다. 총을 맞은 사내의 시야가 흐려진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고, 이런 생각을 하던 ‘나’의 시야가 흐려진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나’의 성찰이 절정에 다다르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맥락상 당연히 이 사내는 ‘아버지’를 의미할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 역시 오늘 만난 유해의 주인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어떤 일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는 ‘나’가 ‘아버지’에 대해 느끼는 감정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굳이 말을 만들어보자면 ‘연민’ 혹은 ‘안타까움’ 정도가 되겠죠?

아아.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쓰러져 누워 있을 것인가. 해마다 머리맡에 무성한 쭈부쟁이와 엉겅퀴꽃을 지천으로 피워 내며 이제 아버지는 어느 버려진 밭고랑, 어느 응달진 산기슭에 무덤도 묘비도 없이 홀로 잠들어 있을 것인가.

- 임철우, 「아버지의 땅」 -

이에 ‘나’는 어딘가 쓰러져 누워 있을 ‘아버지’를 떠올리며 안타까워합니다. ‘아버지’가 정말 저러한 최후를 맞이했다면, 오늘 만난 유해의 주인처럼 ‘아버지’는 머리맡에 ‘쭈부쟁이와 엉겅퀴꽃’을 지천으로 피워 내며 어딘가에 묘비도 없이 잠들어 있을 것이예요. ‘아버지’가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이는 ‘나’의 입장에서 너무나 슬픈 상상입니다. 어쨌든 ‘나’가 성공적으로 ‘기억 재응고화’를 이루어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4%	45%	18%	8%	25%

27. ㉠~㉢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나’의 지각 내용을 ‘나’가 서술하는 상황으로 인물과 서술자가 겹쳐 있다.

㉡ 바로 그 순간부터 나는 아버지의 그 죄라는 것을 내 스스로 함께 나누어 지니고 만 느낌이었고, 그 때문에 나이에 걸맞지 않게 나는 눈빛이 깊고 어두운 아이가 되어 가고 있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지.
해설	‘나’가 ‘아버지’의 죄를 스스로 함께 나누어 지닌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지각 내용을 ‘나’가 직접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물과 서술자가 겹쳐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 ㉢: 서술의 주체를 알 수 있는 표지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서술자와 지각의 주체가 뚜렷이 구분된다.

㉣ 나는 담배를 피워 물었다. 멀리 메마른 초겨울의 야산이 험벗은 등을 까 내놓고 죽은 듯이 엷드려 있었다. 사위는 온통 잿빛의 풍경이었다. 피잉. 현기증이 일어났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서술자와 지각의 주체 둘 다 ‘나’잖아.

해설	㉠에는 서술의 주체를 알 수 있는 '나'라는 표지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메마른 초겨울의 야산'을 떠올리고, '현기증'을 느끼는 등의 지각의 주체 역시 '나'예요. 이렇게 서술자와 지각의 주체가 동일하다는 명백한 근거가 있으니, 이들이 뚜렷이 구분된다는 내용은 허용하기 어렵습니다.
----	--

③ ㉠: '나'가 아니라 '나'가 지각하는 대상을 주어로 서술함으로써 지각의 대상을 부각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 언젠가 어머니의 낡은 반달이 깊숙한 옷가지 밑에 숨겨져 있던 액자 속에서 학생복 차림으로 서 있던 그대로 그건 영락 없는 그 사내였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주어가 '그건'이고, 이걸 '나'가 지각하는 대상이지.
해설	㉠의 주어는 '그건'입니다. 맥락을 고려하면 '아버지의 환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나'가 아니라 '나'가 지각하고 있는 '아버지의 환영'을 주어로 서술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지각의 대상인 '아버지의 환영'을 부각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독자 입장에서 문장의 주어에 주목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④ ㉠: 인용 부호 없이 서술된 발화에서 인물의 목소리가 드러난다.

㉠ 저것 봐라이. 날짐승도 때가 되면 돌아올 줄 아는 법이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러네.
해설	㉠은 그 어떤 인용 부호 없이 '어머니'의 발화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어머니'라는 인물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있죠?

⑤ ㉠: 지각의 주체를 알리는 표지가 나타나지 않아서 누가 지각한 바를 서술한 것인지 모호한 상황이 벌어진다.

㉠ 불현듯 시야가 부엌에 흐려 왔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미리 생각한 내용이네.
해설	㉠의 앞은 '나'가 상상하는, 총을 맞아 최후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에 ㉠은 총을 맞아 의식이 흐려지는 '아버지'의 지각을 서술한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의 최후를 상상하고 정신이 아득해진 '나'의 지각을 서술한 것인지 모호한 상황이 벌어지죠?

지문을 읽으면서 미리 생각하지 못했더라도, 최소한 '나'와 '아버지' 모두 시야가 부엌에 흐려 올 만한 상황이라는 것을 근거로 허용할 수는 있어야 해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5%	9%	62%	5%	19%

28. 윗글에서 ㉠과 ㉡의 서사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뜻밖에도 아버지의 죄를 순수히 시인하는 그녀의 ㉠ 한마디가 내게는 그토록 엄청난 충격으로 깊이 남겨졌던 탓이더라.

소대장이 병을 기울였고 다른 녀석들도 낄낄대며 ㉡ 한마디씩 보태었다.
--

- ㉠은 '아버지'의 죄를 순수히 시인하여 '나'에게 트라우마를 만든 '어머니'의 말이고, ㉡는 한창 '아버지'에 대한 생각에 빠져 있는 '나'와는 달리 술자리를 즐기는 이들의 말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선지를 판단해봅시다.

① ㉠이 이야기의 심화된 주제를 구현하는 제재라면, ㉡는 이야기의 주제를 가능하도록 하는 단서이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랑 주제랑 뭘 상관이야.
해설	이 지문의 주제는 '아버지에 대한 나의 인식 변화'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은 이러한 인식 '변화'의 한 축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제를 '구현'하는 제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심화된 주제'를 구현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심화'는 어떠한 대상이 반복되며 깊어질 때 허용할 수 있는 개념인데, ㉠은 반복되는 부분이 아닌 시작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심화된 주제를 구현'하는 제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아가, ㉡는 '아버지에 대한 나의 인식 변화'와는 전혀 무관한 이들이 벌이는 말입니다. 이를 통해 이야기의 주제를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은 절대 허용할 수 없겠습니다.

FAQ

Q : 이 작품의 주제가 '전쟁과 분단의 상처와 이해와 연민을 통한 상처의 치유'라고 배웠습니다. ㉠은 전쟁과 분단으로 인해 희생된 유골을 치우는 일을 '좋은 일'이라고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를 고려하면 전쟁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을 긍정한다는 점에서 ㉠이 이야기의 주제를 가능하도록 하는 단서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A : 잘못된 연계학습의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수능 문학 지문에서의 주제는 무조건 '중심인물의 내면세계'라고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기출문제는 그렇게 풀립니다. 수능 문학은 즐거리를 알고 있는지 묻는 시험이 아니라, 화자나 인물의 내면세계를 파악하고 공감할 수 있는지 묻는 시험이니까요. 이 지문이 2025학년도 연계교재에 있던 지문이다 보니 이런 판단을 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철저하게 지문 내용에 근거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합니다. 이 지문 속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전쟁과 분단의 상처와 이해와 연민을 통한 상처의 치유'를 강조하는 부분을 찾을 수 없습니다.

② ㉓가 이야기를 절정에 치닫도록 하는 추진력이라면, ㉔는 이야기를 결말에 이르게 하는 원동력이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㉓는 시작하는 부분인데 뭘 소리야.
해설	㉓는 '나'의 내적 갈등이 시작되게끔 하는 지점입니다. 이를 근거로 하면, ㉓가 이야기를 '절정'에 치닫도록 하는 추진력이라는 해석은 허용하기 어렵겠죠. 나아가 ㉔는 그저 '나'의 내면세계와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일 뿐, 결말에 이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이야기를 결말에 이르게 하는 원동력은 철저하게 '나'의 성찰이 있었어요.

③ ㉓가 이야기의 긴장감이 형성되는 요인이라면, ㉔는 이야기의 긴장감이 완화됨을 드러내는 표지이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와 진짜 멋지게 써놨네.
해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과 같은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㉓는 '나'의 내적 갈등이 시작되게 하면서 이야기의 긴장감이 형성되게끔 하는 요인이고, ㉔는 '아버지'에 대한 성찰을 지속하며 긴장감이 고조되는 '나'의 내면세계와 대비되는 상황을 보여 줌으로써 일시적으로 이야기의 긴장감이 완화됨을 드러내는 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㉔의 경우 '낄낄대며' 하는 말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해석을 허용할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미리 생각한 내용을 멋진 표현으로 써 둔 것에 불과한 선지이니, 가볍게 답으로 고를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 심화

이 문제를 통해 결국 묻고자 한 것은 '나'의 내면세계 중심으로 독해했는지입니다. ㉓는 '나'의 내면세계 그 자체고, ㉔는 '나'의 내면세계와 대비되는 모습이니까요. '나'의 내면세계에 차분하게 공감하며 읽지 않았다면, ㉔를 읽으면서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경우 이 문제가 어렵게 느껴졌을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인물의 내면세계에 대한 공감'이라는 핵심적인 포인트를 잊지 않고 공부하도록 합니다. 정말 소설에서는 이것 하나만 묻습니다.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④ ㉓가 이야기의 위기감이 해소된 종착점이라면, ㉔는 이야기의 위기감이 고조된 정점이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㉓는 시작점이라니까.
해설	몇 번이고 이야기하지만, ㉓는 이야기의 위기감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이를 근거로 하면 '해소된 종착점'이라는 표현은 절대 허용할 수 없겠죠. 나아가 ㉔는 이야기의 위기감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지점입니다. 3번 선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미리 생각했던 내용이죠? 가볍게 지워낼 수 있겠네요.

⑤ ㉓가 이야기를 일으키는 시발점이라면, ㉔는 이야기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는 귀결점이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㉔에서 뭘 전모가 드러나는데?
해설	㉓가 이야기를 일으키는 시발점이라는 것은 충분히 허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㉔가 이야기의 전모를 드러내는 귀결점이라는 것은 허용하기 어렵죠? ㉔는 '나'의 내면세계 속 이야기의 전모와는 무관한 상황이니까요. '나'의 내면세계를 제대로 캐치하지 못한 약 20%의 학생들이 그저 ㉔가 뒤쪽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골라버린 선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선지를 답으로 골랐다면 앞으로의 공부 방향을 더 많이 고민하셔야 합니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15%	9%	16%	43%	17%

29. ㉓와 ㉔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저것 봐라이. ㉓ 날짐승도 때가 되면 돌아올 줄 아는 법이다. 어머니가 말했다.

아아.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쓰러져 누워 있을 것인가. 해마다 머리맡에 무성한 ㉓ 쭈부쟁이와 영경귀꽃을 지천으로 피워 내며 이제 아버지는 어느 버려진 밭고랑, 어느 웅덩이 산기슭에 무덤도 묘비도 없이 홀로 잠들어 있을 것인가.

- ㉓는 '아버지'가 돌아오길 바라는 '어머니'가 '아버지'에 비유한 대상이고, ㉔는 어딘가에서 유해가 되어 있을 '아버지'의 머리맡에 피어 있는 것들입니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을 골라봅시다.

① ㉠은 ㉡에 비해 능동적이므로 인물이 처한 문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날짐승이 어떻게 '나의 문제 상황에 영향을 미쳐.
해설	㉠은 그저 '아버지'에 대한 비유일 뿐, 진짜 '날짐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돌아오면 모를까, '날짐승' 자체는 인물이 처한 문제 상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오히려 ㉡를 정말로 확인한다면 '나'가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 '나의 문제 상황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② ㉢은 ㉣와 달리, 시간과 공간에 관여되면서 이야기의 배경에 실감을 더하게 된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둘 다 실제 대상이 아닌데 뭘 소리야.
해설	㉢와 ㉣는 각각 '어머니'와 '나'가 떠올리는 가상의 존재일 뿐, 실제 시공간에 관여되어 존재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야기의 배경에 실감을 더할 수는 없어요.

③ ㉤은 ㉥와 달리, 희망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인물이 원하는 바를 집약한 결과이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가 왜 희망적이야.
해설	㉤는 '아버지'가 돌아올 것이라는 것에 대한 '어머니'의 희망이 반영된 것, 나아가 '어머니'라는 인물이 원하는 바를 집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는 '아버지'가 죽었을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에 오히려 '어머니'의 희망이 무너진 상황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와 ㉤를 반대로 써봤기에 틀린 선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④ ㉦에서 연상되는 상황이 현실이 될 경우 ㉦에 투영된 염원은 실현 가능성이 사라진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럼 아버지가 죽었다는 거니까 돌아올 수 없지.
해설	㉦에서 연상되는 상황은 '아버지'가 어딘가에서 쓸쓸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이 될 경우, 이미 죽은 '아버지'가 '날짐승'처럼 '어머니'에게 돌아올 수는 없겠네요. 즉, ㉦에 투영된 '어머니'의 '아버지'가 돌아올 것이라는 염원은 실현 가능성이 사

라지는 것이죠. ㉦와 ㉣ 부분에서 '나'가 어떤 상상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인식했다면 어렵지 않게 답으로 고를 수 있겠습니다.

⑤ ㉧와 ㉨ 모두, 관념적 의미가 부여됨으로써 인물이 이념에 편향되어 있음이 알려진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뭘 소리야.
해설	㉧와 ㉨는 각각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의 개인적 염원, '나'의 개인적 추측을 담고 있습니다. '관념적 의미'가 부여된다는 것은 도저히 근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겠습니다. 어설픔게 연계교재 학습을 하고서 이 어처구니없는 선지를 고른 학생들이 무려 17%나 되는 모습입니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4%	4%	71%	11%	10%

30.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낙인'과도 같은 유년의 기억을 성인이 되어서도 떨쳐버리지 못했다는 고백에 비추어 보면, 응고된 기억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일이 쉽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겠군.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러네.
해설	선지 그 자체로 허용할 수 있겠죠? '나'가 처한 상황을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대로 적어놓은 선지입니다.

② '죄악감과 불길한 예감'을 유발한 동인을 추적해보면, '아버지'에 관한 기억이 마음의 상처로 남음으로써 '나'의 심리적 불안정이 비롯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겠군.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아버지에 관한 기억 때문에 죄악감과 불길한 예감에 시달린 거 맞지.
해설	'나의 '죄악감과 불길한 예감'을 유발한 동인(직접적인 원인)은 '아버지'의 죄를 자기 스스로 함께 나누어 지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에 관한 기억이 마음의 상처로 남아 '나의 심리적 불안정이 비롯되고 있다는 것, 이 지문의 내용 그 자체네요.

- ③ ‘줄무늬’를 ‘내던지’는 ‘노인’의 행위와 ‘물사발’을 올리는 ‘어머니’의 행위가 이어지며 제시되는 부분을 보면, ‘나’의 기억을 재응고화하기 위한 이들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겠군.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저게 ‘나’의 기억 재응고화랑 뭘 상관이나.
해설	‘줄무늬’를 ‘내던지’는 ‘노인’의 행위는 그저 유해를 수습하는 과정 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나’는 그 행위를 보며 ‘물사발’을 올리는 ‘어머니’의 행위를 떠올렸기 때문에, 두 행위가 이어지며 제시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나’가 스스로 ‘기억 재응고화’의 과정을 거치며 연결시킨 것일 뿐, ‘노인’과 ‘어머니’가 ‘나’의 ‘기억 재응고화’를 돕는다는 것은 절대 허용할 수 없겠죠? 이 지문에서 ‘나’의 ‘기억 재응고화’는 철저하게 ‘나’의 성찰에서 비롯된다는 명백한 근거가 있으니까요.

- ④ ‘모래밭’에서의 ‘어머니’ 형상과 ‘사내의 환영’이 어우러지는 장면에서, ‘아버지’에 대해 굳어져 있던 기억이 재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시사된다고 할 수 있겠군.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기억 재응고화 시작이지.
해설	지문을 읽으면서도 미리 생각했듯이, ‘모래밭’에서의 ‘어머니’ 형상과 ‘사내의 환영’이 어우러지는 ‘나’의 상상 장면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 재응고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저 죄인으로서만 여겨졌던 ‘아버지’가 ‘어머니’와 함께 하고자 했던 평범한 남자로 인식되는 순간이었죠.

- ⑤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유해’에 대응되면서 ‘나’의 정서적 반응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보면, 부정적인 기억을 재구성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회복해 가는 경위를 엿볼 수 있겠군.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아버지를 연민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회복할 수 있겠지.
해설	‘아버지’에 대한 ‘기억 재응고화’의 결과로, ‘나’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유해’에 대응시키며 ‘아버지’에게 연민을 느낍니다. 이러한 정서적 반응의 변화는, 부정적인 기억을 재구성하여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는 <보기>의 내용과 연결지을 수 있겠죠. ‘아버지’에게 연민을 느낀다는 것은, 더 이상 ‘아버지’의 죄 때문에 ‘죄악감과 불길한 예감’과 같은 감정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의미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요.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p>*핵심 point*</p> <p>① 허용 가능성 평가 : 선지의 내용을 ‘허용’하려는 태도를 바탕으로 지문을 ‘독해’하며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허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만 허용할 수 있습니다. 주관적인 생각을 개입시키면 안 됩니다.</p> <p>② 소설 독해 : ‘심리와 행동의 근거’를 바탕으로 인물에게 ‘공감’하며 읽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물흐르듯 이어지면 지문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p> <p>③ skip 가능 구간 : 인물의 똑같은 내면을 반복적으로 묘사하거나, 뻔한 이야기가 반복되는 구간은 조금 빠르게 스캔하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p>

<p>*지문 내용 총정리*</p> <p><보기>를 바탕으로 얻은 힌트를 이용하여 ‘나’의 내면세계를 추적해가는, 전형적인 현대소설이었습니다. 단순히 주어진 텍스트를 바탕으로 내용일치 문제를 푼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면, 답이 잘 보이지 않게끔 까다로운 문제가 많이 출제되기도 했구요. ‘인물의 내면세계에 대한 공감’이라는 수능 소설의 핵심적인 포인트를 잊지 않은 채로 분석해보도록 합시다.</p>
